종택마을의 형성배경 및 입지공간에 관한 풍수지리적 분석

- 영주・문경・상주・의성・청송지역을 중심으로 -

박재락*

〈차 례〉

1. 서론
2. 종택마을의 형성배경과 입지
3. 종택마을 입지공간의 풍수지리적 분석
4. 결론

【국문초록】

'종택마을'은 종택(宗宅)을 중심으로 입향조의 후손들이나 구성원들이 정주공간을 이루어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다. 현존하는 경북 북부지역 종택마을은 약 400~500여년 전에 종택의 입향조가 입지를 선정하여 지금껏 현존하고 있는 곳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북북부지역 종택마을 중 각 지역마다 1곳만 존재하는 종택마을 5곳(영주・문경・상주・의성・청송지역)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당시 입향조의 입지관이 풍수사상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금의

* 국풍(國風)환경설계연구소장

종택마을의 입지 환경을 풍수지리의 형식논리(간룡법·장풍법·득수법·정혈법·좌향법)를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간룡(看龍)법의 분석 결과, 종택마을의 입지는 낙동강을 기준으로 볼 때, 위쪽지역인 영주·문경지역은 백두대간맥을 의지하고 있고, 아래쪽의 의성·상주·청송지역은 낙동정맥을 의지하고 있다. 즉 산계와 수계가 만나는 공간에 종택마을이 입지한 것이다.

둘째, 장풍(藏風)법의 분석 결과, 5곳 종택마을 입지는 '사신사(四神砂)'가 갖추어진 공간에 종택을 비롯한 정주공간은 소명당을 형성하였고, 경제공간인 중명당의 명당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장풍(藏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득수(得水)법의 분석 결과, 장풍득수국을 이루는 영주·문경·의성 청송지역의 종택마을은 득수형태는 궁수(弓水)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풍국인 상주 수암종택은 '지당수'의 득수형태를 이루었다. 그리고 역수형태도 역시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역수형태로 걷어주는 지세는, 내수(內水)보다는 외수(外水)나 객수(客水)의 유입에서 일어나는데, 주로 본신용호(本身龍虎)나 안산(案山)의 사격(砂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정혈(定穴)법의 분석 결과, 주산의 내룡맥이 뻗어내려 현무봉을 기봉하면서 중심룡맥이 입수하는 공간은 혈장을 형성하였고, 입수 용맥이 머물고 있는 혈처에 종택이 입지하고 있다.

다섯째, 좌향(坐向)법의 분석 결과, 영주·문경지역의 종택마을은 서좌동향(西坐東向)으로 정주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의성·청송지역의 종택마을은 북좌남향(北坐南向)으로 입지하였고, 상주지역은 동좌서향(東坐西向)으로 입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5곳 종택마을의 좌향입지가 모두 달리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물을 득수하기 위한 방향으로 자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

시의 농업경제를 위한 식·용수가 용이한 곳의 입지를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종택마을 입지에서 바라 본 상대향을 살펴보면, 득수의 수류향(水流向)도 좌입우출(左入右出)을 이루고 있는 곳은 4곳이며, 상주지역만 우입좌출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이 흘러들어오는 방향성을 보고 입지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입향조의 풍수사상이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종택마을은 입향조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 입지관인 풍수지리 사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별 1곳만 현존하는 종택마을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얻은 것이므로, 향후 다른 지역의 종택마을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주제어: 종택마을, 입향조, 풍수사상,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좌향법

1. 서 론

본 논문은 경북북부 5개 지역(영주·문경·상주·의성·청송)에 현존하고 있는 종택마을을 대상으로 형성배경과 입지 공간에 대해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1)]

종택(宗宅)은 '선조(先祖)중의 덕망 있는 조상(祖上)이나 입향조(入鄕祖)가 터를 잡은 최초의 주거공간이며, 대대로 그 자손들이

1) 종택마을의 형성은 대략 16세기 이후로 나타나는데 현존하고 있는 경북북부지역의 문화재 지정 종택은, 안동(43)·봉화(7)·영양(6)·영덕(10)·예천(5)로 나타나고 문경·상주·영주·의성·청송지역은 각 1개의 종택 뿐이다. 이처럼 지역간의 종택수가 다른 것에 대해 필자는 당시 입향조의 입지선정이 종택마을의 형성과 번영에 있어서 풍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풍수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접근해 본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한다.[2] 여기서 '종택마을'이란, 이러한 종택을 중심으로 입향조의 후손들이나 구성원들이 정주공간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당시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반적인 풍수관 및 주거관념은 이중환의 『擇里志(택리지)』[3] 「卜居總論(복거총론)」에서 마을의 자리 잡기와 관련하여 "살기 좋은 집터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생리(生利)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 인심(人心)이 좋아야 하고,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樂土)이 아니다."[4] 고 하였다. 당시 주거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리를 우선적으로 살폈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삶이 풍족해짐으로써 인정이 넘치는 정주공간으로 부터 가까운 곳에 산천이 어우러지는 곳을 복거로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입향조가 주어진 자연환경에서 인간이 살기 적합한 주거공간을 찾기 위한 방법론인 풍수사상이 적용된 것을 의미한다.

풍수지리학에서 산수가 어울리는 공간은 명당의 기운이 생성되는 곳이다. 명당공간에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이 오래도록 보존되고 있다거나 그곳이 생가 터나 주거공간을 이루었을 때, 훌륭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즉, 풍수적으로 발복(發福)이 이루어지는 '터'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택마을을 이루는 정주공간을 살펴보면, 주산의 내룡맥이 현무봉을 이루어 중심룡맥이

---

2) 박재락, 「안동지역 종택(宗宅)마을의 입지와 공간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제3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p. 177.

3) 『擇里志』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실학파 학자인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의 저서이다. 책의 구성은 인문지리서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사민총론·팔도총론·복거총론'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 있다. 조선후기 사대부의 택지관념이나 지리 관념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곳은 '복거총론'에 서술되어 있다.

4) 이중환 저, 이민수 역, 『擇里志』, 평화출판사, 2005, p. 180. "大抵卜居之地理爲上生利次之次則人心次則山水四者缺一非樂土也"

입수하는 곳에 종택이 입지하고 있다. 풍수적으로 용맥이 입수하는 공간은 혈장을 이루는데, 마을의 중심공간을 이루는 곳이다. 그러므로 입향조의 입지선정에 의해 지금의 종택마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풍수지리가 자연과 인간이 어울릴 수 있는 입지공간을 환경설계하기 위한 우리 선현들의 자연관이자 토지관인 것이다. 대부분의 종택마을은 약 300~500여년 전에 형성되어 오랜 세월동안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지리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입향조의 풍수사상이 적용된 종택마을의 입지 환경이 풍수적으로 길지(吉地)에 입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풍수적으로 '길지'란 산과 물이 서로 조응하는 공간으로, 뒤로는 주산을 의지하고 있으며 좌우의 산세가 안온하게 감싸고 있는 터를 이루고 있는 곳을 뜻한다. '풍수사상'에서 산과 물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공간은 음양의 기가 교합하여 생기가 머물고 있는 명당공간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연환경을 찾기 위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향조가 처음 터를 선정한 후 오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훼손되지 않고 지금껏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정주공간이 풍수적 명당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산을 의지하고 득수가 용이하여 농경 및 생활하기에 편리한 자연·지리적 환경을 갖춘 공간은, 지금의 현대인들이 주거환경으로 선호하는 친환경 생태공간과도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사대부들인 입향조가 터를 선정하여 정착하였던 곳은 전국적으로 볼 때, 경북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경북북부지역 중에서도 안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다.[5]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지역은 현존하는 종택마을이 1곳만 형성되

5) 박재락, '같은 논문' 에서 영남의 북부지역 중에서 안동지역에 종택마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다.

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현존하는 종택마을의 분포가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입지공간에 따른 주변산세의 풍수 요소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축학·조경학·민속학·인류학에서 종가의 주거문화와 건축물의 양식과 구조에 대한 풍수사상을 접목한 이론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종래의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연구로 종택마을의 입지특성을 풍수지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북북부 지역 중에서 지역마다 1곳만 형성되어 있는 종택마을로 하였다. 이것은 한 지역에 집중 분포된 곳의 입지보다는 5곳의 각기 다른 지역별 입지환경을 분석해본다면, 집중 분포된 지역과 산재된 북부지역 종택마을의 풍수적 입지환경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택마을의 입지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풍수지리학의 분석틀인 간룡·장풍·득수·정혈·좌향법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따른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당시 입향조의 입지관이 풍수사상이 적용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의 종택마을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6]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종택마을의 입지가 단순히 명당이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현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풍수적 형식논리를 적용한 연구가 필요할 시점으로 본다. 향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종택마을을 대상으로 풍수지리학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6)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북 안강의 양동마을 2곳의 종택마을이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2. 종택마을의 형성배경과 입지

우리의 선현들은 자연을 읽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상을 가졌는데, 바로 물과 바람의 변화를 살펴서 주거입지(양택지)나 묘터(음택지)의 선정에 활용하였던 풍수지리사상(風水地理思想)을 들 수 있다. 풍수지리학에서 양택(陽宅)의 주거지에 대한 입지선정과 연관된 것은 양기풍수이론(陽基風水理論)이다. 양기풍수이론은 도읍지 선정과 같이 거대한 규모의 입지에서 작게는 한 마을의 입지나 한 종족(宗族)의 주거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7] 여기서 현존하고 있는 종택마을은 당시의 사대부인 입향조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어 지금까지도 정주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당시 사대부인 입향조는 자연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거공간을 찾기 위해 풍수사상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8] 이 장에는 종택마을의 형성과정 및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입지공간에 대한 당시 입향조들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개괄해 본다.

1) 종택마을의 형성 배경

지금의 종택마을은 각 성씨들이 모여 살고 있는 정주공간을 말한다. 조선전기 마을의 형성시기를 살펴보면, 산촌(散村)들이 점차 성씨를 주축으로 하는 혈연적인 집촌으로 새롭게 변모하게 되는데 조선 건국 이래 사족들이 이거와 정착과정이 연관되어 있었다. 려말선초의 전환기에 사족들은 처향이나 외향 등의 연고지를 따라,

---

7) 박재락, 「안동지역 종택(宗宅)마을의 입지와 공간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3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p. 178 재인용

8) 본 논문에서는 양택풍수이론의 입지선정 형식논리를 간룡법·장풍법·득수법·정혈법·좌향법 등으로 적용하였다.

혹은 향·소·부곡 등 행정개편상 중앙정부의 통제가 철저하지 않는 지역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삼았다. 대개 입향조나 낙향조로 불러지는 이들 조선전기 이거사족들은 이후 동족적인 확대와 조직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지역의 후손들에 의해서 '파조'나 '중시조'로 추앙을 받는다. 이들은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천방(泝)의 개발[9]을 통해 농지를 확대해간 주체이었으며, 이시기에 발전하는 수전농법과 이양법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경제적 지배력을 확보해간 세력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농지가 점차 평야·저지대로 확산되고 집약농법에 근거한 소농민경영의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되자, 이를 주도했던 제지사족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생촌락들은 급속적으로 증가[10]하게 되었다. 촌락공동체적인 생산방식의 동원이 촌락발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력과 인력동원 능력을 지닌 유력 사족층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마련이었고, 결국 이를 주도하는 사족들의 사회적인 위상도 강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도적인 지위가 도전받게 되는 17세기 후반 이후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사족가문들은 족적인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고, 그것이 바로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문중활동이었던 것이다. 즉 종가를 주축으로 가문의

---

9)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p. 61 참조.
'堤堰'·'川防'이 역대 地誌에 실린 곳은,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를 비롯하여 英祖朝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官撰邑誌』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천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지지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 사림출신의 수령과 현지 사림파 인사들에 의해 편찬된 것이며 그러한 것은 주로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다.

10) 이수건, 같은 책, p. 63 참조.
각 읍마다 대표적인 사족들의 동성촌은 대체로 천방을 쉽게 축조하여 引水灌田할 수 있는 '溪居'지역에 위치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중환이 『擇里志』 山水條에서 지적했듯이 관개의 이점에서 본다면 海居가 江居보다 못하고 강거가 溪居보다 못했던 것이다.

종래 지위를 유지 존속하려는 의지가 문중의 조직화 내지는 동족마을의 형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11]

조선시대의 동족마을은 동성마을, 혹은 씨족마을로 불러지면서 사회학·인류학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동족마을은 대체로 하나의 지배적인 동성동족집단이 특정마을의 주도권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거주하여 온 마을이라고 말하지만,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 성격들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12] 그러나 본 논문에서 필자가 의미하는 동성마을은 경북북부지역의 종택이 현존하고 있는 마을인데, '종택마을'로 표현하였다. 즉 16세기를 전후하여 입향조의 풍수관에 따른 마을의 입지선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선조의 제사, 경제적 협동의 필요성에 따라 종택을 중심으로 정주공간을 이루면서 산촌(散村)에서 집성촌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性)과 본(本)이 같은 성씨들이 중심적 세력을 이루면서 종택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가부장적인 부계친족체계가 일반화되면서 본격적인 종택마을이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표 2-1 : 종택의 현황표>은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종택마을의 입향조 및 형성시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에 의하면 종택마을의 형성시기는 주로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입향조와 종택마을의 형성시기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문중에 있어서 입향조의 개념이 선조 중에서 덕망이 높거나 국가에 공을 세워 '불천위(不遷位)'를 받게 되면 파조(派祖)의 입향조로 정해지기 때

11) 이해준,『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pp. 60-62 재인용

12) 즉 ① 동일한 선조, 동성동본자가 한 마을에 집단 거주하는 것(善生永助,『조선의 취락』, 1933), ② 촌락내의 조직과 씨족조직이 일치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이 일치할 때, 수적인 위세나 선조의 권위가 존속되는 경우 그 자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위가 보장되는 마을(정진영,『조선후기 동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1991). 등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다. 이해준,『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p. 285 재인용.

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입향조 개념을 조선시대 사대부로서 낙향하거나 처향을 하면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 입지를 처음으로 선정한 파조나 중시조를 원칙으로 하였다.

<표 2-1> 종택마을의 현황

	宗宅名	所在地	入鄕祖	形成時期
1	花岐里仁同張氏宗宅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18-2	張末孫(1431~1486)	16세기 추정
2	聞慶長水黃氏宗宅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5	黃時幹(1558~1642)	16세기말
3	豊山柳氏 修巖宗宅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102	柳袗(1582~1635)	1700년대
4	鵝洲申氏梧峯宗宅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251	申之悌(1562~1624)	1650년
5	平山申氏判事公派宗宅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376	申得淸 ?	1705년

2) 종택마을의 입지공간

종택마을의 입지공간은 이중환의 「복거총론」에서 지적한 '지리(地理)'가 우선시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환이 「복거총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양기(陽基), 즉 좋은 집터의 조건은 일단 일조량이 많은 곳이며, 주변산세가 겹겹이 둘러쌓인 곳은 가거지(可居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고 추위나 더위가 적당해야 하며, 사방의 산이 위압하듯이 높지 않고, 열려있는 들판이 있는 곳이 바로 정주공간을 이루어야 한다. 또 주산을 비롯한 주위의 산들이 가지를 뻗어 입지처를 감싸듯이 환포하고, 산의 형세는 아늑하면서도 건물이 겹쳐져 있는 형국이어야 한다. 그리고 안산과 조종산은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이

마을입지와 좌향을 이루어야 한다. 이처럼 이중환이 언급하고 있는 좋은 주거의 조건은 결국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은 형국, 좋은 명당의 조건과 상당히 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만선도 『산림경제』「복거조」에서 『한정록』이라는 책의 내용을 재인용하면서 지리, 즉 산과 물의 조합을 보되, 산과 물의 배합이 긴밀하지 않고 또 물이 지나치게 큰 넓은 국면은 재물이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3]

이와 같이 사대부의 입지관은 풍수지리사상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대개 선비된 자는 천문·지리·의약·점서를 모두 알아야만 비로소 큰 선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14],” 이 기록 중의 ‘지리’란 곧 ‘풍수지리’를 의미하므로, 풍수지리관념은 향촌의 선비에게도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존하고 있는 종택마을의 주산(主山)에는 많은 입향조의 유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대부들에게 유행하였던 풍수사상이 선조들의 묘지선정 및 주거지 선정에 상당히 역할을 하였던 것을 의미한다.[15]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입향조는 은거와 정착이 가능한, 살기 좋은 삶터를 찾기 위해 풍수사상[16]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동성마을의 입지는 대부분 산을 배경으로 정주공간을 이루었으며, 앞쪽은 시냇물이나 강물이 흐르고 있고, 마을 주위에는 논과 밭이 자리 잡고 있다. 주거공간은 대체로 안산

---

13) 박재락, 『宗宅마을의 風水的 立地類型과 構造의 計量的 硏究 -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 81-83 참조.

14) 『세조실록』 33, 세조10년 4월26일 “凡爲儒者, 盡曉天文地理醫藥卜筮, 而後始可爲之通儒 汝其能之乎”

15) 박재락, 「안동지역 종택(宗宅)마을의 입지와 공간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3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pp. 181-182 재인용

16) 입향조의 ‘풍수사상’을 방증하는 것은 본 논문의 3장에서 종택마을을 분석하여 밝히고자 한다.

(案山)[17]을 향해 있어 그 곳 사람들의 심신을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하천이나 강이 마을의 들판을 적시면서 수구처(水口處)를 이루는 곳이 마을 입지공간이다.[18] 이러한 동성마을의 입지공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풍수적인 입지 환경을 알 수 있다. 백두대간의 내룡맥이 이어진 주산은 중심룡이 출맥하여 현무봉을 세우고, 좌우로 가지를 뻗은 좌청룡·우백호가 포근히 감싸듯이 안은 공간은 혈장[19]이 형성되어 정주공간을 만들었다. 정주공간의 중심공간은 혈처[20]를 이루는데, 지금의 종택이 자리하고 있다. 종택의 뒤편은 주산의 지세가 현무봉을 거쳐 입수맥을 품은 중심룡이 산진처를 이룬 곳이다. 즉 중심룡의 입수맥이 완만한 경사도로 이어져와 머물면서 혈장을 이룬 뒤, 좌우가 반듯하고 평탄한 중심공간에 종택이 자리한 것이다. 이곳은 지세가 안정되면서 균형이 잡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용맥의 생기를 받기 위해 걸 터 앉아 있듯이 편안하고 포근한 공간을 갖추었다.

---

17) 마을 앞의 강이나 하천 너머에 위치한 산을 의미한다. 풍수적으로 안산이 붓 끝같이 솟아 오른 형태를 목형산이라 하며 문필가를 배출한다. 금형산일 경우, 산의 형태가 솥뚜껑을 엎어 놓은 모습으로 부자가 배출된다. 토형산의 경우, 산은 기와지붕의 형태인데 왕후장상이 배출된다. 화형산의 경우, 봉우리가 날카롭게 솟아오른 형상인데 권력자가 많이 배출되며, 수형산의 경우 산의 형태는 여러 봉우리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문인이 배출된다. 이처럼 산의 형태가 마을입지에서 안산을 이루고 있을 때, 그곳의 구성원들이 부귀공명과 연관 시키는 유감주술(類感呪術)을 갖게 되는 것이다.

18) 박재락, 「안동지역 종택(宗宅)마을의 입지와 공간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제3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p. 183 재인용

19) 명당을 이루기 위한 주변 산세에 의해 형성된 공간을 말한다. 혈장은 주산의 지세에 의해 국이 형성되는데
주로 사신사(현무·청룡·백호·안산)가 갖춘 곳의 가장자리이며 본 논문에서는 정주공간을 이루는 소명당이 된다.

20) 혈장의 중심공간인 종택이 입지한 곳을 의미한다. 이곳은 주변보다 약간 융기된 지세를 이루는데, 좌우가 평탄하고, 토양이 단단하며 양명한 토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풍수적으로 생기가 머무는 공간은 혈처를 이루는 명당을 의미한다. 이처럼 혈처를 이루는 명당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발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혈처에 자리한 종택의 주거공간은 백두대간의 천리 내룡맥이 주산과 현무봉을 거쳐 입수맥이 멈춘 곳에서 승생기(乘生氣)를 하고 있는 곳이므로, 풍수적 발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택마을을 입지공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산의 내룡맥의 근간을 살펴보고, 이러한 산세에 의해 사신사(四神砂)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득수형태와 수계를 살펴야 하고, 종택마을의 생기가 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청룡·백호·안산의 산줄기에 의해 역수를 이루고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유리한 지형을 갖추는 곳이므로, 농산물·땔감·물고기 등을 용이하게 생산·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학문을 닦으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산천의 풍경을 감상하거나 정기를 느끼면서, 성정(性情)을 연마하고자 한 사림파선비의 복거조건에도 잘 어울리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남지역 종택마을의 입지공간은 최초 입향조가 읍치의 외곽이라 할 수 있는 산간지역 가까운 곳에 입지를 선정하여 정착하면서 최초의 주거공간이 성립되었고, 이 후 입향조의 자손과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종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짓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면서(양반이니까 물론 농사의 경영을 의미하며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뜻은 아니다), 마침내 수십 내지 수백호의 주택이 정주공간을 이루게 되면서 종택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 이루어져 지금껏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21]

---

21) 박재락, 『宗宅마을의 風水的 立地類型과 構造의 計量的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 152.

3. 종택마을 입지공간의 풍수지리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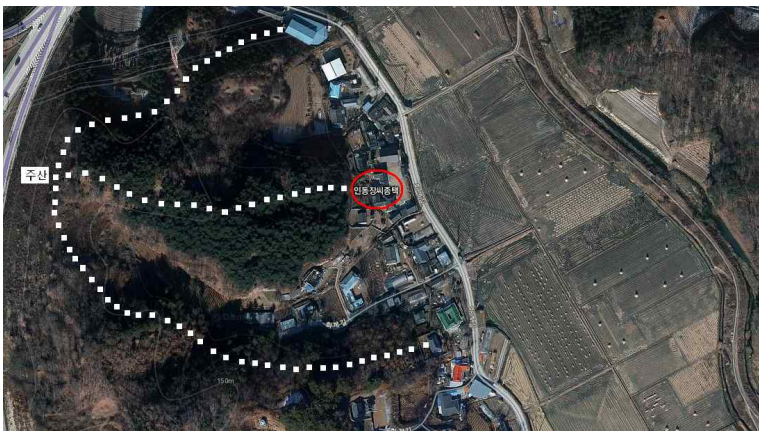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5개 지역의 종택마을에 대한 입지공간 분석을 풍수지리의 형식논리인 간룡법·장풍법·득수법·정혈법·좌향법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간룡법에서는 종택마을의 주산을 이루면서 종택으로 입수한 현무봉의 중심룡맥이 혈장을 이루는 입지에 종택마을의 정주공간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장풍법에서는 종택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산세가 사신사를 이루면서, 혈장내에 품고 있는 생기가 바람에 흩어지지 않도록 장풍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폈다. 득수법에서는 마을입지에서 보았을 때 물을 얻은 수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살폈고, 물이 흘러들어오는 득수형태를 장풍국과 장풍득수국의 유형별 입지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정혈법에서는 종택입지가 주산-현무봉으로 이어진 중심룡맥이 물을 만나 음양의 조화를 이룬 혈처에 터를 잡은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좌향법에서는 종택마을 입지를 득수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변사격에 의해 물길이 역수형태를 이루는 상대향인지를 살폈고, 물이 흘러들어오는 좌향으로 마을입지가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논리에 의한 분석결과를 각 종택마을마다 <도표>로 정리하였고, <풍수입지도>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다.

1) 영주 화기리 인동 장씨 종택 〔민 제98호〕

화기리 마을은 고려시대에 구씨(具氏)가 개척하였는데 그 후 민씨(閔氏)가 살았으나, 조선조 세조 때 장말손(張末孫)의 현손(玄孫)인 대호군(大護軍) 언상(彦祥)이 380년 전 문경군 산북면 내화에서 이주하여 마을 이름을 화계(花溪)라 불렀다. 화기(花岐)란 뜻은 화계의 화자와 이 마을 뒷산인 기산의 기자(岐字)를 따서 부르게 된

것이라 전해진다.[22] 세조 때 이시에 난에 공을 세운 적개공신으로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경윤 장말손의 현손인 장언상(1529-1609)공이 입향한 후 인동 장씨의 집성촌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1> 영주 화기리 인동장씨 풍수입지도



인동장씨 종택마을의 입지는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룬 공간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택마을 입지를 풍수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산을 이루는 성산(城山)은 백두대간에서 분맥한 자구지맥의 내룡맥이 이어져와 기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산'의 내룡맥이 현무봉을 기봉하였고, 현무봉의 중심룡맥이 입수하여 혈처를 이룬 곳에 종택이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종택이 입지한 공간이 협소하여 좌우의 내청룡·내백호의 산줄기가 감싸는 공간에 정주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앞쪽으로 작은 규모의 중명당이 형성되어 있으며 마주하는 안산 사이에는 '내수(內水)'인 계류수를 득수하고 있다. 계류수의 흐름은

22) 慶尙北道 敎育委員會,『慶尙北道地名由來總攬』, 1994, p. 1030.

중명당을 '궁수(弓水)'[23] 형태를 이루면서 환포하고 있으며, 좌입우출(左入右出)의 수류향(水流向)을 이루고 있다. 지금의 중명당은 예전에는 하천이 형성되었던 공간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곳 종택마을의 경제공간은 주로 외명당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명당을 이루는 공간은 '외수(外水)'가 유입되면서 안산이나 좌우지맥이 서로 '수구처(水口處)'[24]나 '합수처(合水處)'[25]를 이루는 공간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안산이 없는 경우에는, 좌우지맥의 산줄기가 걷어주는 역수형태를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동장씨 종택마을의 수계(水系)는 계류수와 외명당을 적시면서 흐르는 '옥계천'과 합수를 이루는데, 이렇게 합수된 수세(水勢)는 외백호지맥이 걷어주는 사격을 이루기 때문에 역수형태를 이루었다. 이러한 역수형태에 의해 외명당이 형성되는 풍수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외수에 의한 퇴적층이 농경지를 이루고 있는 곳은 마을입지에서 볼 때 사신사가 벗어난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풍수요인들이 나타나는 입지유형을 '장풍득수국(藏風得水局)'이라 한다.

'장풍득수국'을 이루는 인동장씨종택마을은 정주공간이 협소하고 앞쪽의 중명당도 협소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외산용호에 의한 수계가 역수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마을입지는 외명당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종택의 입향조가 입지선정을 하면서 정주공간과 안산이 가까이 있는 곳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경제공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입지를 찾기 위해 풍수사상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곳 종택마을은 입향조에 의해 장풍과 득

23)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수계가 마치 활 시위를 당기면 반원을 이루는 형태를 풍수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24) 마을입지에서 보았을 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을 나타내는 풍수용어이다.

25) 주로 '내수'와 '외수'가 만나는 공간으로, 외부사격에 의해 외명당을 형성하는 공간이 된다.

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에 입지를 선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종택마을은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산의 내룡맥이 이어져 오는 길목에 중앙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놓여져 있고, 주산의 내룡맥이 이어지는 과협처에도 영주나들목이 형성되어 있다. 풍수적으로 종택마을을 형성하는 공간의 명당 지세는 많이 훼손되어 지기가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풍수지리학에서 산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산줄기가 끊기듯이 용맥이 훼손되어 주변지세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입향조에 의해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명당공간이, 개발논리에 의해 자연공간이 훼손된 것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택마을이 입지하고 있는 곳은, 절대로 무리한 개발로 인해 풍수적 명당지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3-1> 인동장씨 종택마을 풍수분석

來龍脈	主山	四神砂	穴處	小明堂	中明堂	外明堂
자구지맥(백두대간)	성산	있음	있음	x	있음	있음
水系	得水	得水形態	逆水	水口砂	合水處	立地類型
옥계천(지류하천)	내수+외수	궁수	있음	있음	있음	장풍득수국

2) 문경 대하리 장수황씨종택〔문 제236호〕

문경 산북면 대하리는 고려 말엽 단양우씨가 막골에 터전을 잡고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 후 조선 세종 때 명신(名臣) 황희 정승의 후손인 황정(黃珽)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한두리의 위쪽에 위치하였다 하여 '웃한두리'라 칭하였다고 한다. 사정공파의 장수황씨종택은 조선 세조 때 부사정으로 지낸 황정 공의 고택

으로 그의 현손인 현감을 지낸 철봉 황시간(1588-1642)이 35세 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금의 종택건물은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약 400여 년 전에 건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그림 3-2>에 나타난 장수황씨 종택마을에 대한 풍수적 입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룡맥에 의해 주산을 이루는 성황산은 운달지맥이 백두대간룡맥에서 처음으로 분맥한 지맥룡(支脈龍)이다. 이러한 용맥은 대간룡의 지기를 바로 받은 강한 용맥을 의미한다. 산경표에 의하면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한반도의 중심공간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지리산에서 행도를 멈추는 대간룡(大幹龍)의 산줄기를 이루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내룡맥이다.[26] 따라서 백두산은 태조산(太祖山)이며, 조산(祖山)은 백두대간에서 분맥되는 중심산이고, 주산(主山)은 마을입지 공간을 좌측과 우측에서 보호해 주고 있는 사격의 시원처(始原處)가 되는 산을 말한다.

<그림 3-2> 문경장수황씨종택 풍수입지도



26) 풍수지리학에서 산계를 이루는 내룡맥은 1대간 12정맥(正脈)으로 분류한다. 1대간은 백두대간이며, 12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맥한 산줄기를 말한다. 관북·관서·청천·해서·예성·한북·낙동·호서·한남·호남·금강·낙남정맥이 된다. 주로 큰 강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택마을은 주산에서 뻗어내린 현무봉의 중심룡맥이 황씨종택으로 입수하였고, 좌우의 청룡·백호가 감싸듯이 마을의 정주공간을 품고 있다. 현무·청룡·백호가 '금천'을 만나면서 3곳의 산줄기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멈춘 형국이다. 즉 음(산)과 양(물)이 서로 만나 음양교합을 이루어, 풍수적으로 생기가 생성되면서 지기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금천 앞쪽에는 안산이 가까이 마을을 마주하며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입지가 사신사(四神砂 : 현무·안산·청룡·백호)에 의해 에워싸여져 있는 보국(保局)을 이루는데, 이러한 입지는 명당공간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주는 장풍형국을 갖춘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의 종택은 주산에서 현무봉으로 이어진 중심룡맥이 입수하여 혈장을 이룬 혈처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의 정주공간은 좌우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곳 역시 영주인동장씨종택마을과 마찬가지로 소명당의 위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안산이 아주 가까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수계를 살펴보면, 종택마을의 정주공간으로 본류하천인 '금천'이 '궁수(弓水)'형태로 환포하고 있다. 본류하천은 백두대간에서 분맥한 지맥에 의해 형성된 산세에서 발원된 계류수가 모여 지류하천을 이루게 된다. 계류수는 주변 산세의 정기를 머금은 채 마을의 정주공간으로 흘러들어오는 내수형태로, 주로 당시의 마을의 식음·용수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류하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을의 경제공간을 적신 후 서서히 흘러내려 다시 이러한 계류수가 합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류하천은 다시 물줄기를 형성하여 본류하천을 만나게 되므로, 종택마을입지가 본류하천을 득수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변의 산세에서 생성된 많은 생기를 머금고 흘러들어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 종택마을의 입지는 서좌동향(西坐東向)을 이루고 있는데, 본류하천인 '금천'의 수

류향이 좌입우출의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득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득수는 '외수'를 이루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앞서 밝힌 영주인동장씨종택과 같은 형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산과 좌우의 청룡·백호지맥이 마주하면서 수구사(水口砂)를 형성하고 있다. '수구사'의 역할은 안산과 백호 산줄기가 좌입우출하는 수류향의 유속을 느리게 하여 서서히 흘러나가도록 한다. 앞선 밝힌 생기가 머문 물줄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래도록 정주공간을 적시면서 서서히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종택마을의 주산인 성황산은 마을의 정주공간을 이룰 수 있도록 좌우용호가 감싸는 역량을 갖추었으며, 마주하는 안산과 백호산줄기는 외수인 금천(본류하천)을 역수형태를 이루면서 걷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구사'를 이루기도 한다.

따라서 장수황씨 종택마을의 입지는 지기가 사신사에 의해 장풍이 이루어져 지기가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머물고 있으며, 생기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산과 좌우사격이 역수형태를 이루면서 아울러 '수구사'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풍득수국' 입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표 3-2> 장수황씨 종택마을 풍수분석

來龍脈	主山	四神砂	穴處	小明堂	中明堂	外明堂
운달지맥(백두대간)	성황산	있음	있음	x	x	있음
水系	得水	得水形態	逆水	水口砂	合水處	立地類型
금천(본류하천)	외수	궁수	있음	있음	있음	장풍득수국

3) 상주 풍산류씨 수암종택 〔민 제70호〕

수암종택은 풍산(豊山) 유씨(柳氏) 우천파(愚川派) 종택으로 조선

시대 서애 유성룡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1582-1636)공이 입향하여 자리잡은 곳이며, 우물리 1102번지에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심춘(柳尋春: 1762~1834)[27]과 유후조(柳厚祚, 호 洛坡, 1798~1875)[28] 두 선생이 출생한 곳으로 지방문화재 민속자료 제70호(86. 12. 11)로 지정되어 있다. 1700년 중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9]

수암종택마을 입지는 <그림 3-3>에 나타났듯이 종택을 중심으로 정주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종택만 입지해 있다. 종택마을은 종택을 중심으로 정주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뜻하는데, 이곳은 종택과 마을의 정주공간이 청룡지맥에 의해 양분되어 있는 형국이다. 먼저 수암종택의 풍수적 입지를 살펴보면, 주산에서 기봉한 내룡맥이 현무봉을 이룬 뒤, 현무봉의 중심룡맥이 길게 뻗어내려 산진처(山盡處)를 이루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중심룡맥이 뻗어내리다가 전면에 형성된 지당(池塘)을 만나 혈장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의 정주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보국이 좁기 때문에 종택만이 주거공간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그림 3-3>에 나타난 마을의 정주공간을 살펴보면, 중심룡맥에서 좌측으로 가지맥이 뻗어내려 청룡자락을 이룬 곳을 의지하고 있으며, 이때 마을입지는 위천이 흘러들어오는 좌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국은 종택입지는 배(등)가 되고, 청룡을 의지하고 있는 마을은 면(얼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풍수적으로 좌우용맥이 안아주는 공간에 중심룡맥이 혈장을 이루어

---

27)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상원(象遠), 호는 강고(江皐). 유성룡(柳成龍)의 후손으로, 조선시대의 문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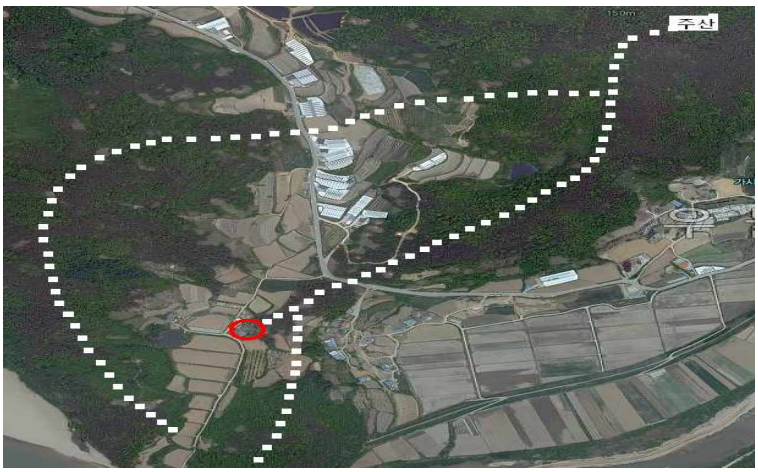
28)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재가(載可), 호는 매산(梅山)·낙파(洛坡)·이며 심춘(尋春)의 아들이다. 1858년(철종 9)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부사·부호군을 지내고 1864년(고종 1)에 이조참판, 이듬해 공조판서를 지냈으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남인계 인사 중용책에 따라 1866년 우의정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상주시 홈페이지 참조.

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청룡자락이 마을의 정주공간을 가까이서 환포하듯이 감싸주지 못하고 배반하는 형국을 이루기 때문에, 지기가 모이지 않고 흩어져 집성촌을 이룰 수 없는 곳이 된다.

따라서 지금의 마을입지는 입향조에 의해 형성된 정주공간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 농지정리 작업으로 의해 작은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현재의 종택입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무봉의 중심룡맥이 혈장을 이루고 있는 곳에 종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종택을 중심으로 좌우로 작은 촌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주공간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3 : 풍산류씨 수암종택 풍수입지도>



수암종택을 중심으로 주변산세를 살펴보면, 사신사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현무봉을 의지하고 있는 종택은, 전면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 안산을 향해 마주하고 있다. 안산의 형국을 살펴보면, 주산의 곁가지맥이 우선(右旋)[30]을 하면서 크게 감

30) 내룡맥의 흐름이 주산에서 우측으로 환포하듯이 포물선 형태를 이루면서

싸듯이 종택을 180도 이상 환포하여 백호안산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내룡형태는 사신사를 이루는 현무봉과 안산이 조밀하게 보국을 이루기 때문에, 소명당과 중명당이 거의 형성될 수 없는 입지가 된다. 그렇지만 종택 앞쪽에는 안산에서 흘러내린 물길이 '지당'을 이루고 있어, 종택으로 입수한 중심룡맥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당'이 있으므로 종택의 입지가 혈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만약 물을 만나지 않으면 중심룡맥의 지기는 흘러나가는 형국이 되므로 종택의 입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국이 감싸듯이 조밀하게 산세가 이루어진 공간에 종택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이곳의 지기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풍국을 이루는 것이다.

다음은 수계를 살펴보면, 종택의 청룡 뒷면에는 '위천'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다가 서북방위에서 흘러들어오는 '낙동강'과 합수(合水)하고 있다. 풍수적으로 물길은 바람길이다. 장풍국입지에서 지금의 수계는 '외수(外水)' 와 '객수(客水)'로 본다. 지금의 '위천'은 청룡지맥을 의지하는 현존 마을의 득수형태로 볼 때 '외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장풍국내의 입지가 아닌 배반하는 형국의 산세를 의지하면서 득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계는 종택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종택입지에 머물고 있는 지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즉 장풍국입지는 사신사를 이루는 주변산세에 의해 지기는 많이 생성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기(水氣)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암종택은 이러한 수계를 가까이 끼고 있는 장풍국입지를 이루기 때문에, 생태공간을 유지하기에 좋은 득수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암종택의 풍수적 입지는 지형상 바람을 영향을 많

뻗어가는 산줄기의 형태를 말한다.

이 받는 곳이지만, 현무봉의 산진처에 입지하면서 안산을 가까이 마주하였고, 백호지맥이 안산국을 이루어 종택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명당규모가 적은 보국으로 이루어진 '장풍국'을 뜻한다.

<표 3-3> 풍산류씨 수암종택마을 풍수분석

來龍脈	主山	四神砂	穴處	小明堂	中明堂	外明堂
보현지맥(낙동정맥)	천봉산	있음	있음	x	있음	x
水系	得水	得水形態	逆水	水口砂	合水處	立地類型
계류천	내수	지당수	x	x	있음	장풍국

4) 의성 구미리 아주신씨 오봉종택〔문 제187호〕

조선 선조시 이조참별(吏曺參別) 신지제(申之悌)와 종제(從弟) 홍산훈도 신지문(鴻山訓導 申之問)과 같이 기지(基地)로 정하고 구호(龜湖)로 하였다고 한다. 그 후 남대천이 끼고 있는 앞산의 구릉이 마치 거북과 유사하다 하여 구미(龜尾)로 하였다고 전해진다.[31] 아주신씨종택(鵝洲申氏宗宅)은 오봉사당·낙선당(樂善堂)과 함께 일곽(一廓)을 이루고 있으며, 오봉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 경내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 종택마을의 입지는 <그림 3-4>에 나타나는데, 풍수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룡에 의한 내룡맥의 용량은, 낙동정맥에서 분맥(分脈)한 보현지맥에 의해 주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주산[32]은 내룡맥을 뻗어 현무봉을 기봉한 후, 좌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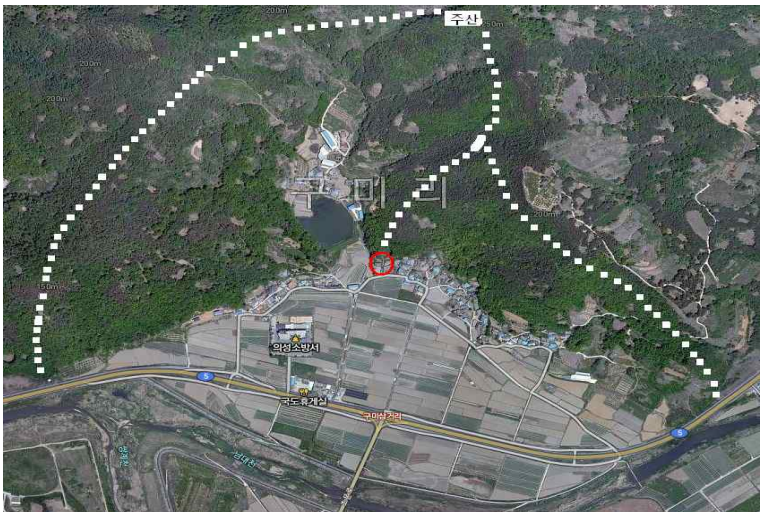
31) 慶尙北道 敎育委員會,『慶尙北道地名由來總攬』, 1984, p. 196

32) 마을 뒷산에 동삼, 백꿩, 백사 등 세 가지 보물이 있었다 하여 산 명칭을 삼보산(三寶山)이라 하였으며, 마을 정기를 오래 지속하여 후손이 번창하기를 기념하면서 선조들이 마을 뒷산과 마을 입구 맞은 산에 왕릉과 같은 무덤을 만들어 맞 무덤이라고도 불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활짝 가지를 뻗어내려 마을입지를 감싸는 보국을 이루었다.

현무봉의 중심룡맥은 주산에서 좌선(左旋)[33]으로 내려와 종택으로 입수맥을 뻗은 뒤, 혈장을 이루었고 마을의 정주공간은 청룡·백호를 의지하는 입지를 이루고 있다. 종택의 입지(坐)와 마주하는 방위(向)에 안산의 중심봉우리와 좌향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안산의 좌우측가지맥이 가지런히 뻗어내려 마을의 정주공간을 장풍할 수 있도록 자리하고 있다. 종택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사신사(四神砂)는 좌우측 사격인 청룡·백호자락과 현무봉과 안산사격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천기와 지기를 서로 조응·응집·반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룡·백호지맥은 순하게 서로 중명당을 감싸기 위해 살포시 지맥을 수계에 맞대고 있으며, 현무봉 옆에는 계류수가 모여 지당(池塘)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3-4> 의성 오봉종택 풍수입지도



33) 내룡맥의 흐름이 주산에서 좌측으로 환포하듯이 포물선 형태를 이루면서 뻗어가는 산줄기의 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이 내룡맥이 물을 만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산진처에 혈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좌우사격이 감싸는 안쪽 중심공간에 종택이 위치하는 것도 현무봉의 중심룡맥이 입수하는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혈처가 되는 것이다.

풍수적으로 득수에 있어서 '지당수'는 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지당수'는 대부분 종택마을의 정주공간 앞쪽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 종택마을은 현무봉의 중심룡맥 옆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좌선하는 중심룡맥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물을 만나는 형국을 이룬 것이다. 즉 산에서 발원한 내수는 산의 정기가 맺혀 밖으로 표출된 것이므로, 계류수는 산의 정기가 응축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수량(水量)이 적은 도랑물의 형태라도 풍수지리학에서는 길수(吉水)로 본다. 장풍국의 입지에서 사신사에 의해 발원한 내수가 주로 계류수인데, 명당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류수(도랑물)를 득수하여야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류수가 지당을 형성하였다면 명당길지를 이룰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인 내수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오봉종택마을의 중명당은 좌우사격에 의해 넓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으로 외수인 남대천(지류하천)이 좌입우출의 수류향을 이루면서 흘러들어오는 수세이다. 득수형태는 궁수(弓水)를 이루고 있으며, 청룡·백호지맥과 안산의 좌·우측지맥이 서로 가깝게 마주하면서 조밀하게 '수구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백호산줄기와 안산의 좌측 산줄기는 한문[34]을 이루기 때문에, 종택마을의 생기가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사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쪽방위에 객수(客水)[35]인 쌍계천(지류하천)이 흘러들어와 '외수'

34) '捍門'은 수구사를 이루는 입지에 대문형태의 기둥 모양처럼 좌우측에 우뚝 솟아 있는 사격을 말한다.

35) '객수'는 마을입지의 사신사를 벗어나 외부에서 발원하여 마을로 유입되

인 남대천과 합수를 이루고 있고 있다. 객수의 유입이 안산쪽에서 중명당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종택마을의 입지에서 본다면 길수(吉水)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길수의 발원처는 주로 조산(朝山)이 형성된 곳에서 이루어진 수계이므로, 풍수적으로 외부의 생기를 머금은 채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봉종택마을은 정주공간을 비롯한 경제공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명당공간이 사신사에 의해 장풍을 하고 있으며, 외수와 객수에 의한 득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풍득수국'의 입지를 갖춘 종택마을이 된다.

<표 3-4> 아주신씨 오봉종택마을 풍수분석

來龍脈	主山	四神砂	穴處	小明堂	中明堂	外明堂
보현지맥(낙동정맥)	삼보산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水系	得水	得水形態	逆水	水口砂	合水處	立地類型
남대천(지류하천)	외수	지당·궁수	있음	있음	있음	장풍득수국

5) 청송 중평리 평산신씨 판사공파종택〔민 제89호〕

마을의 지명은 중들·중뜰·중평(中平)으로 불려 졌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신숙(申璹)이 의병을 도왔으며, 그 후 300년이 지나 황무지로 되어 있던 이 일대를 입향하여 개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청송과 진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중들'이라고 전하고 있다.[36] 지금의 종택은 파시조 27세손 신한태(1663-1719)공이 조선 숙종 때(1705) 건축되었다고 한다. 종택의 공간배치를 살펴보면, 솟을 대문을 들어서면 몸채와 별동의 사랑채

어 흐르는 외수와 합수하는 수계이다.

36) 慶尙北道 敎育委員會,『慶尙北道地名由來總攬』, 1984, p. 330

사이에 넓은 사랑마당이 있다. 또 안채의 우측에는 사당이 있고 좌측에는 영정각과 서당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대부 종택의 공간배치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아래 <그림 3-5>에 나타나는 평산신씨 종택마을의 풍수적 입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룡(看龍)에 의한 내룡맥은 백두대간의 매봉산에서 분맥한 정맥으로 산경표에는 낙동정맥(洛東正脈)으로 나타난다. 주산인 방광산(519m)은 낙동정맥에서 분맥한 구암지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주산의 내룡맥은 서북방위에서 뻗어오다가 현무봉을 기봉하기 위해 좌선으로 선회하여 서북방향을 남쪽으로 내룡하여 봉우리를 세웠다. 이러한 행룡형태는 용맥이 살아있듯이 변화를 이루는 것으로, 풍수적으로 생룡(生龍)이라 한다. 이러한 용맥으로 이루어진 현무봉은 주산의 생기맥이 전달되어 응집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무봉의 중심룡맥이 종택으로 입수하면서 혈장을 이룬 것이므로, 주산의 지기가 그대로 이어진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지기를 받고 있는 종택을 중심으로 소명당을 이루고 있는 공간은, 혈장을 이루면서 정주공간이 형성되어 이곳의 구성원들이 생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을의 정주공간은 주산에서 뻗어내린 좌청룡·우백호의 산줄기가 감싸고 있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룡과 백호지맥이 균형을 이루면서, 앞쪽의 안산과 마주하여 있는 공간에는 중명당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계류수가 흐르며 명당뜰을 적시고 있다.

이러한 마을 입지는 풍수적으로 장풍과 득수가 동시에 이루어진 공간이다. 그리고 사신사의 청룡·백호지맥은 산줄기를 따라 정주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옆쪽 공간에는 경제공간이 개간되어 있다. 옆쪽의 경제공간은 마을입지에서 본다면, 청룡지맥을 개간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무리한 개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맥의 훼손이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주산지기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종택마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5>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종택 풍수입지도



그리고 종택이 의지하고 있는 중심룡맥은 우입좌출하는 계류수와 만나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종택마을의 정주공간은 생기가 생성될 수 있는 명당공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용맥이 물을 만나 궁수형태를 이루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산과 물이 음래양수(陰來陽授)[37]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마주하는 안산의 중심봉우리가 좌측으로 가지맥을 뻗어 종택마을의 백호지맥과 마주하고 있으므로, '수구사'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종택마을로 유입되는 계류수가 우입좌출의 구곡수로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득수형국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안산의 우측지맥이 종택마을의 청룡지맥과 서로 껴안듯이 마주하면서 계

37) 풍수적으로 산은 움직임이 없으므로 '음'을 의미하며, 물은 동적이므로 '양'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산과 물의 형태가 음양을 이루어야 생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음래양수'는 중심룡맥의 지맥이 물을 만나 득수형태가 궁수를 이루는 현상인데, 이것은 용맥이 수계까지 뻗어내린 형상일 때 가능하다. 따라서 용맥이 뻗어나오고 흐르는 물이 받아주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류수의 파구처를 이루는 수구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수구사의 역할은 종택마을의 지기가 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조밀하게 감싸주는 장풍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크게 환포하듯이 뻗어내린 청룡지맥은 계류수를 걷어주는 역수형태를 이루는데, 이러한 수세의 변화를 시키는 사격(砂格)은 종택마을의 구성원들에게 생태공간의 기를 순환시켜주는 길격(吉格)이 되는 것이다. 내수인 '계류수'는 종택마을을 환포하듯이 감싸는 궁수형태를 이루어 흐르다가 마을입구에서 본류하천인 '용전천'과 합수한다. 이와 같이 계류수가 본류하천으로 유입되어 합수한다는 것은, 방광산의 정기를 머금고 흐르는 계류천의 지기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득수형국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합수처에 '중평솔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기(水氣)의 순환은 종택마을 입지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택마을의 입지가 사신사에 의해 정주공간의 명당지기가 보호해주고 있으며, 내수와 객수가 어우러진 득수형태를 이루는 곳이므로, 풍수적으로 장풍득수국을 이루는 길지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평산신씨종택마을은 입향조의 풍수사상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어 지금껏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5곳의 종택마을의 입지를 분석해 본 결과, 입향조는 마을의 입지를 선정할 때, 우리의 전통 입지관인 풍수사상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풍수사상은 우리 선현들이 주거공간에 대해 경험과학적인 형식논리에 따라 자연환경을 설계한 방법론이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표 3-5> 평산신씨 판사공파종택마을 풍수분석

來龍脈	主山	四神砂	穴處	小明堂	中明堂	外明堂
구암지맥(낙동정맥)	방광산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水系	得水	得水形態	逆水	水口砂	合水處	立地類型
계류천	내수	궁수	있음	있음	있음	장풍득수국

4. 결 론

경북 북부지역 종택마을은 약 400~500여 년 전에 종택의 입향조가 입지를 선정하여 지금껏 현존하고 있는 곳이다. 입지공간을 살펴보면 산세와 수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에 정주공간을 선정하여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하였던 곳으로, 풍수적으로 명당기운을 품고 있는 친환경 생태공간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북북부지역 종택마을 중 각 지역마다 1곳만 존재하는 종택마을 5곳(영주·문경·상주·의성·청송지역)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종택마을입지를 풍수지리의 형식논리(간룡법·장풍법·득수법·정혈법·좌향법)를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종택마을의 입지를 장풍국·득수국·장풍득수국으로 분류하여 입지특성을 살폈고, 지역별 종택마을의 <풍수입지도>와 <풍수분석표>를 삽입하여 이해를 도왔다. 본 연구에 나타난 종택마을 입지의 풍수지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룡법에 의한 분석결과, 종택마을의 입지는 영주·문경지역은 백두대간에서 분맥한 내룡맥이 주산을 이루는 공간에 있으며, 의성·상주·청송지역은 낙동정맥에서 분맥한 내룡맥이 주산을 이룬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즉 낙동강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쪽은 백두대간, 동쪽은 낙동정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계와 수계가 만나는 공간에 종택마을이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풍법에 의한 분석 결과, 5곳 종택마을 입지는 '사신사(四神砂)'가 갖추어진 공간에 종택을 비롯한 정주공간인 소명당과, 경제공간인 중명당을 명당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장풍(藏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득수법에 의한 분석 결과, 영주·문경지역 종택마을의 수계는 지류·본류하천을 끼고 있었고, 상주·의성·청송지역의 종택마을은 계류천·지류하천으로 나타났다. 득수형태는 장풍국인

상주 수암종택마을만 '지당수'를 이루었고, 나머지 종택마을은 장풍득수국 입지에 궁수(弓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수형태도 역시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역수형태로 걷어주는 지세는, 내수보다는 외수나 객수의 유입에서 일어나는데, 주로 본신용호나 안산의 사격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넷째, 정혈법에 의한 분석 결과, 주산의 내룡맥이 뻗어내려 현무봉을 기봉하면서 중심룡맥이 입수하여 혈장을 이루는 곳에 종택이 입지하였고, 앞쪽으로 정주공간을 형성하여 마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좌향법에 의한 분석 결과, 영주·문경지역의 종택마을은 서좌동향(西坐東向)으로 정주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의성·청송지역의 종택마을은 북좌남향(北坐南向)으로 입지하였고, 상주지역은 동좌서향(東坐西向)으로 입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5곳 종택마을 입지는 물을 득수하기 위한 좌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농업경제를 위한 식·용수가 용이한 곳의 입지를 선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택마을 입지에서 상대향을 살펴보면, 득수의 수류향은 좌입우출을 이루고 있는 곳은 4곳이며, 상주지역만 우입좌출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이 흘러들어오는 방향성을 보고 입지선정을 한 것이므로, 각 지역마다 입향조의 풍수사상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5곳의 종택마을 입지공간을 풍수적 형식논리인 간룡법·장풍법·득수법·정혈법·좌향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입향조의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유형별 득수형태에서 장풍국은 '지당수'나 '계류수'를 득수하였고, 장풍득수국에서는 '본류하천'과 '외수'에 의한 득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곳의 종택마을과는 달리 수암종택마을

만이 종택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 1곳만 현존하는 종택마을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얻은 것이므로, 향후 다른 지역의 종택마을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 한국학의 중요한 분야인 풍수지리학을 접목한 종택마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山林經濟』
『世祖實錄』
『擇里志』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경북향토자료지』, 1972.
경상북도,『고향경북』, 1996.
경상북도,『경상도칠백년사』 제1권, 2권, 4권, 1999.
慶尙北道 敎育委員會,『慶尙北道地名由來總攬』, 1984.
박성태,『신상경표』, 조선일보사, 2004.
박시익,『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이민수 역,『擇里志』, 평화출판사, 2005.
이수건,『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_____,『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이순형,『한국의 명문종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이해준,『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변주승 역,『여지도서 경상도(Ⅲ,Ⅵ)』, 디자인 흐름, 2009.
정진영,『조선시대 향촌 사회사』, 한길사, 1998.
최창조,『한국의 풍수지리사상』. 민음사, 1984.

박찬용・현중영,「조선시대 전통주택 풍수의 좌향」,『한국정원학회지』 16-4, 한국정원학회, 1998.

_____, 「조선시대 사대부마을 풍수의 시각적 구조」, 『한국정원학회지』 17-3, 한국정원학회, 1999.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박재락, 「宗宅마을의 風水的 立地類型과 構造의 計量的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_____, 「종택마을 입지의 풍수적 형식논리를 적용한 사례연구」, 『국학연구』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_____, 「안동지역 종택(宗宅)마을의 입지와 공간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3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다음지도.
경상북도 홈 페이지.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타 홈 페이지.
디지털 안동문화 대전.
문화재청 홈 페이지.
상주시 홈페이지

An Analysis of Family Head Village's Background of Formation and Its Location Space in Terms of Feng Shui

- Focused on Regions as Yeongju, Mungyeong, Sangju, Uiseong and Cheongsong -

Park, Jae-Rak

Main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5 family head's villages(in Yeongju, Mungyeong, Sangju, Uiseong and Cheongsong region) which were selected from Northern Gyeongbuk area one per one region.

The formal logic of Feng Shui(Gallyongbeop, Jangpungbeop, Deuksubeop, Jeonghyeolbeop and Jwahyangbeop) was applied to analyze whether the locational environment of family head's house is qualified sufficiently to be a good place in terms of traditional Feng Shui.

The location of family head's village was divided into Jangpungguk, Deuksuguk and JangpungDeuksuguk to investigate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Feng Shui location chart> of family head's villages by region was inserted to help understand.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analysis in terms of Feng Shui.

First, analysis by Gallyongbeop showed that the location of family head's village relied upon BaekduDaegan and the Jusan of NakdongJeongmaek.

Second, analysis by Jangpungbeop showed that 'Sasinsa' keeps winds from scattering and shuts them within the settlement including the family head's village.

Third, analysis by Deuksubeop showed that as for water system, family head's villages in Yeongju and Mungyeong embraced mainstreams and branches, and those in Sangju, Uiseong and Cheongsong were ditches and branches. as for the type of Deuksu, Jangpungguk of only Suam family head's house in Sangju forms a 'Jidangsu', and the remaineder 4 family head's villages had the location type of JangpungDeuksuguk in the form of an archer. The type of counterflow showed the same result. The topography, that rolls up the

flowing-in water in the form of counterflow and that results from the inflow of foreign water or exterior water rather than interior water, is caused mainly by Bonsinyongho or Sagyeok of Ansan. Fourth, analysis by Jeonghyeolbeop showed that the family head's house is located where the Naeryongmaek of Jusan is stretched down to form Hyeonmubong and the central Yongmaek makes propitious site. In front, there was formed settlement and village.

Lastly, analysis by Jwahyangbeop showed that the family head's village was located facing left to get water. Investigation of relative direction showed that the location was selected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water flowing in.

As such, analysis of the location of 5 family head's villages by the formal logic of Feng Shui showed that location was selected by the Iphyangjo of Feng Shui. As this research acquired the results from each family head's village per region out of subjects, further relative research may be needed on family head's villages in other regions. It is desirable that this research of family head's village shall be continued with connection of Feng Shui, an important field of korean Studies.

Key words: Gallyongbeop, Jangpungbeop, Deuksubeop, Jeonghyeolbeop, Jwahyanglbeop, Iphyangjo, Jong-ga house

박재락
소속: 국풍환경설계연구소장
주소: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5. 킹덤오피스텔 611호, 국풍환경설계연구소
전화번호: 053)754-8200 / 011-510-9500
전자우편: pjr9500@hanmail. net.

이 논문은 2013년 7월 10일 투고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31일 게재 확정함.